

“전남에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하자”

전남도·한국과총 나주시 포럼
미래과학기술·신산업발전 기반
산·학·연·정 한목소리 주장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이 3일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열렸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동향 및 필요성과 전남지역 구축방향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국내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정치권이 미래 과학기술과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공동으로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신정훈·이용빈 국회의원, 최용국 한국과총 광주전남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국내 레이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유태준 한동대 교수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필요성 ▲이성구 광주과학기술원 박사의 초고출력 레이저 현황 및 활용 ▲김중도 한국해양대 교수의 고출력 레이저 응용기술과 연구시설의 구축 방향 ▲임창환 원자력연구원 박사의 레이저 고에너지 플라즈마 연구 등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레이저 연구시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좌장을 맡은 고도경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미시세계 물리·자연현상 연구를 위한 펨토초(1000조분의 1초) 이하의 기초과학 연구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동균 그린광학 전무는

“한국은 레이저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지만 실질적 원천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레이저 기술자립과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제고하기 위해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은 초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에너지, 나노, 생명과학,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 분야의 발전을 이끌 국가 필수시설이다. 전남에 구축되면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차세대 에너지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에너지밸리 구축 등 지역 산업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 미래전력 등 국

가 신산업 육성에 일조하는 랜드마크 연구시설이 될 전망이다.

최용국 회장은 “레이저는 에너지, 나노, 생명과학,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과학연구를 선도하고 기술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평가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라며 “전남에 반드시 구축해 미래 과학기술과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노도영 기초과학

연구원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고도경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 전략회의를 열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구축 필요성, 레이저 핵심부품 국산화, 레이저 전문인력 확보, 국내 기술 여건 등을 논의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인건에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동참사 재발 방지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8건 제안 광주시 쓴소리 위원회

생활 현장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광주시 쓴소리 위원회가 안전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광주시 쓴소리 위원회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학동 붕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안전 매뉴얼,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 공공쉼터 확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발굴 등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해체공사 안전 관리 방안, 자립형 쉼터 확대 등 현안별 대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제안을 들었다. 위원회는 사전 활동으로 8건의 정책도 제안했다.

길거리 반찬가게 단속, 고독사 통계 작성과 청년 복지 대안, 아이스팩 재활용,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 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시작해 102건 안건을 제안했다.

김경희 쓴소리 위원회 위원장은 “시민 참여로 나와 이웃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시민안전보험금 16명 1억2천만원 수령

광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광주시민 안전 보험금’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상품과 중복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 8월까지 지난해 2명, 올해 14명 등 16명이 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사망 사고 2명, 지난 6월 학동 철거 건물 붕괴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6명이 포함됐다.

학동 사고와 관련해서는 부상자들도 후유장애 진단 후 지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사망 보상 항목이 추가돼 사망자 2명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된다.

가입자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강도상해, 스물론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등으로 사망하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농기계 등 상해 피해도 수백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실(062-613-4923)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연대를” 문화예술회관장 현안 처리후 내년 개방형 다시 지정

중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에 2050 탄소중립 등 도정 소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2021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에서 녹화 방식의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타이위안 에너지 저탄소 발전 포럼은 산시성에서 2016년부터 개최한 중국 국가급 행사다. 국내외 에너지혁명, 과학, 미래 발전,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는 전문 교류 장이다.

올해는 ‘에너지, 기후, 환경’을 주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과학기술부 및 글로벌 에너지 선도 기업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석해 저탄소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산시성 해외 교류지역 대표로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영상 녹화 방식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남도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선도, 2050 탄소중립 저탄소 에너지 정책 등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산시성은 이번 포럼과 함께 온라인에 박람회 부스를 개설해 운영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3대 에너지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선양구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교류가 다소 위축됐지만 해외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지속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호교류가 전남도와 해외 우호 지역 간 관계를 더욱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문화계·시민단체 반발 따라 광주시, 일정기간만 공무원 임명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은 개관 28년 만에 지난 2019년 지역문화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 후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전문가를 관장으로 임용했다.

하지만, 현 관장의 사임에 따라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후임을 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고 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후임 관장을 공무원으로 충원하려고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공연이 크게 축소돼 이 기간 동안 문화예술회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 강구, 공연작품과 연계된 관광 상품화를 위한 예산확보, 공사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진행 시 2~3개월의 업무 공백 발생으로 중요한 시기에 업무추진 차질이 우려돼 당분간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한데 대해 지역 문화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8월 29일자 16면·9월 1·3일자 17면> 광주시는 5일 차기 문화예술회관장은 개방형 직위를 해제해 일정 기간만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해 운영한 뒤 향후 시의회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한 성현출 문화예술회관장 후임으로 민간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울돌목 횡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스카이워크(110m) 해상케이블카(960m) 2021. 9월 개통

해남군